

연립하는 타자들의 세계

제가 이 글을 적고 있는 2022년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한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2~3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해당 법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국한해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법령 시행 직전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었죠. 여전히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산재와 관련된 하나의 복잡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2010년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눈을 치우다 넘어져 자신의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산업재해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 후 장애인의 의족이 신체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위 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장애인 '의족'은 신체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의족'이 그렇다면 목발,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 스마트 기기 등은 어떨까요?

이 사례를 김초엽, 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에서 읽게 되었을 때 저는 의족을 착용하게 되는 삶을 떠올려봤습니다. 내 몸의 결함을 보완하는 기구나 기계들이 내 몸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일까, 안에 있는 것일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계기는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도록 해줄 겁니다. 지체 장애인의 휠체어와 시각 장애인의 흰 지팡이에 대해,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와 문자통역기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시각 장애 안내견과 무인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렌 오더나 키오스크에 대해서도요. 사실상 '사이보그적 경험'은 SF영화의 주인공이나 악당의 이미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와 사물, 신체와 기계의 경계를 늘 고민해온 장애 당사자들이 항상 살아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다기능 전동 휠체어, 로봇 의수족, 인간지원로봇 등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때가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최대한 구현하는 로봇 의수와 안구와 호흡으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학 기술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체로 개발자, 연구자, 의사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자리해 있지요. 과학자들에 의해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것 같던 일들에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능력자 인류'에 소속된 한 개체인 것에 감동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돌리면 장애에 대한 사회의 좁은 시선은 너무도 여전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과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수어 서비스들도 확대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이동로 설치에도 신경을 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견고한 일상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은 기본 이동권, 돌봄 지원, 탈(장애인)시설을 위한 권리 등을 제한받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장애의 문제를 절단 장애의 비극을 극복하게 해줄 '로봇 의족'의 놀라운 운동력 구현에 초점을 맞춰 상상하는 일만을 지속한다면, 로봇 의족을 당장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길 원치 않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왜 '저상버스'에 오를 수 없는지, 지하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는 왜 장애인이 없는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목

소리가 어떤 것인지, 장애등급제는 폐지됐는데 여전히 돌봄 지원에는 문제가 많은지 등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논의하는 공간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이보그가 되다』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장애인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요양사들은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찰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인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콜라나 믹스 커피처럼 당과 카페인이 높은 음료를 계속 마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금지하는 돌봄지원 기계/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고칼로리 고카페인 음료에 의해 발생할 당사자의 건강 악화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돌봄 노동자의 과로를 낮추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정서적 부딪힘도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둘 중 어떤 방식이 한 사람의 자율성을 더 억압하는 것일까요? 쉽게 답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돌봄자-돌봄을 받는 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상상해본다면 단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장애-돌봄, 장애-사이보그의 상황이 몇 가지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윤리적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대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자와 함께 질문하고 소통하는 지난한 과정을 뛰어난 기술적 진보에 대한 기대에 쉽게 넘겨주는 상황이 한국 사회 장애 문제의 현실을 더 외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장애와 관련된 과학 기술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그 기술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일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장애인을 돌봄자로부터 극적으로 자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상력은 ‘자립’된 생활이 가능한 비장애인이라는 존재를 ‘정상’ 상태의 인간으로 상정하는 관점이 자동적으로 불러내는 단순한 이미지만입니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온전한 자립 상태로만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조기구와 스마트 기기, 또한 사물과 동물들과 연결된 도움의 연쇄 속에서 연립된 삶을 사는 것이 보다 용이한 일이 되는 것이 소망되어야 할 것입니다.